

■ 의과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K의과학사업단, 연세대학교 김상현¹ · 윤유상² · 전우택³ · 양은배³

Medical Student Career Choice and Career Planning

Sang Hyun Kim, PhD, Yoo-sag Yoon PhD, Woo-Tack Jeon PhD, Eunbae Yang PhD

BK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¹,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²,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³

= Abstract =

Medical Students Career Choice and Career Planning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intention of medical students career choice, educational programmes, and mentoring and counseling system for career planning at Yonsei medical school in Kore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four separate graduation questionnaires at Yonsei medical school in the

years of 2005, 2006, 2007, and 2008. The number of the survey was 130 in 2005, 130 in 2006, 153 in 2007, and that of the latest was 120 in 2008. We analysed the career intention on medical specialties and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medical specialty.

Results: The results which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are these: firstly, students had more intention for choosing clinical medicine as university faculty than any other activities. While male students preferred to major in surgery, neurosurgery, orthopedic surgery, urology, otorhinolaryngology, female students in internal medicine, neurology,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diagnostic radiology, laboratory medicine. Secondly, students perceived that the most impor-

교신저자 :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K의과학사업단/의학교육학과
(120-752)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전화 : 02-2228-2510, 팩스 : 02-364-5450
Email : nara@yuhs.ac

tant factor which can influence on choosing a medical specialty was individual factor such as one's interests and concerns, values, and aptitudes. In stead, they relatively less perceived mentor and role model's effects on choosing a medical specialty compared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rd, the career planning at Yonsei medical school was evaluated well, especially educational programmes for career planning such as self assessment programme, elective(specialized) courses, and conversation with a senior programme.

Conclusions: Unexpectedly, there are high demands for career planning by medical students. Therefore, we will reorganize systematic devices for career planning such as mentoring and counseling system at medical school.

Key Words: Career planning, Medical specialty choice, Mentoring, Counseling, Role model

서론

의과대학생에게 앞으로 어떤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와 같은 진로선택은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과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은 주위 선배나 교수님으로부터 간간히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개인이 각

자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일쯤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진로선택의 문제는 공부에만 전념해온 20대 중후반 청년기의 의과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결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도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의대생의 진로지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까지 의대생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와 저술활동들도 활발해지고 있다(전우택 등, 2006; 김승준, 2005; 임기영과 조선미, 2002; 정선주 등, 2001; 김용일, 1999; 정한용 등, 1999).

의과대학과 학문영역에서의 이러한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회현상, 즉 직업과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공계 기피에 따른 의대진학 열풍, 의대증설로 인한 의사 수의 증가, 그리고 일상생활의 의료화 등의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직업과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의대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 산업사회에서 직업의 의미는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s)을 하였으며, 전문직이긴 했지만 경제발전 이전의 한국의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전의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과목을 전공하고, 어디서 일을 하는 의사가 된다고 까지 깊이 있게 생각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과대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비교적 자신의 개별적 능력과 개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신세대로서 기존의 세대와는 다르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적성이나 능력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신세대가 추구

하는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서 진로선택에서 스스로 통제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중요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이공계 기피에 따른 의대 진학 열풍 속에서 개인의 적성은 무시된 채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등장으로 인해 진로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의대입학의 내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은 의과대학의 팍 짜인 스케줄에 맞추어 과다한 양의 공부를 해내는데 급급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의 증가로 더 이상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출신대학과 전공과목 등에 따른 의사적 내 계층화로 인해 더욱 진로선택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의료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현대에 와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의료가 들어와 있는 현상, 즉 일상생활의 의료화(medicalization of social life)로 인해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제 의사는 병원뿐만 아니라, TV, 신문, 정부기관, 제약회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전문가(specialist)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의대생들에게 다양한 의사로서의 삶을 고려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등장한 진로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의과대학생들이 갖는 세대적 특징, 교육환경 변화 및 의료영역의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는 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게 하였고, 대학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식

적·비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먼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졸업설문(Graduation Questionnaires)을 통해 현재 의과대학생들의 진로선택 현황이 어떠한지,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설문조사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현재 국내 의과대학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선택 및 지도와 관련된 논문과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2005년~2008년에 연세의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졸업설문 조사결과 중 진로지도와 관련된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5년 130명, 2006년 130명, 2007년 153명, 2008년 120명이며, 자료수집과 분석은 각 년도의 12월 중에 실시되었다.

결 과

가. 진로선택 현황

2008년도 졸업예정 학생들은 장래 고려하

고 있는 전공과목과 희망하는 진로유형에 대해 각각 <표 1>과 <표 2>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한 학생들의 116명인 93.7%가 임상 의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

고 있으며, 임상 의학 중에서도 내과(63명)-가정의학과(31명)-안과(22명)-재활의학과, 정신과(2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순위에서도 내과(35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Table 1. Intention of Specialty(2008)

Major	1th	2nd	3th	Total		1th	2nd	3th	Total
[Clinical science]					[Basic science]				
Family medicine	9	12	10	31	Parasitology	0	0	0	0
Internal medicine	35	19	9	63	Microbiology	0	0	0	0
Anesthesiology & pain medicine	3	2	4	9	Pathology	0	3	1	4
Radiation oncology	2	2	0	4	Biochemistry	0	0	1	1
Urology	3	2	3	8	Physiology	0	0	0	0
Obstetrics and gynecology	2	1	3	6	Pharmacology	1	0	0	1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6	3	4	13	Preventive medicine	1	2	0	3
Pediatrics	4	2	4	10	Anatomy	0	0	0	0
Neurology	5	6	6	17	Others	0	0	2	2
Neurosurgery	3	4	2	9					
Ophthalmology	6	6	9	21	Subtotal	2	5	4	11
Diagnostic radiology	10	4	5	19		1.7	4.3	3.5	3.2
Emergency medicine	0	2	3	5					
Otorhinolaryngology	2	5	5	12	[Others]				
Surgery	8	6	5	19	Government & Political circles	0	0	1	
Rehabilitation medicine	5	7	9	21	Journalism	0	0	2	2
Psychiatry	6	6	9	21	Computer science	0	0	0	0
Orthopedic surgery	4	4	6	14	legal circles	0	0	1	1
Laboratory medicine	1	2	3	6	Pharmaceutical medicine	0	0	1	1
Dermatology	0	6	7	13	Other Academy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0	4	0	4	Others	2	0	4	4
					Subtotal	0	0	9	9
						-	-	8.0	2.6
Subtotal	116	110	100	326					
	96.7	95.7	88.5	93.7					
Total	120	115	113	348					

으로 영상의학과(10명)-가정의학과(9명)-일반외과, 안과(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학은 전체 응답자의 11명인 3.2%만이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공과목으로는 병리학(4명) - 예방의학(3명) - 생화학, 약리학(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일반외과, 신경외과, 방사선 종양학, 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남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내과, 신경과, 마취

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로유형 별로는 대학의 임상교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각각 27%, 31.9%, 28.5%,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봉직의 - 개원의 순으로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2007년도까지 봉직의 비율이 개원의 비율보다 높은데, 특히 2006년도의 경우 다른

Table II. Career Intention(2005~2008)

		2008		2007		2006		2005	
		N	%	N	%	N	%	N	%
University faculty: Basic science	M	8	42.1						
	F	11	57.9						
	Total	19	15.8	-	-	6	5.0	3	2.0
University faculty: Clinical teaching/research	M	21	61.8						
	F	13	38.2						
	Total	34	28.3	37	28.5	38	31.9	40	27.0
Solo practice	M	12	48.0						
	F	13	52.0						
	Total	25	20.8	25	19.2	15	12.6	40	27.0
Salaried, hospital	M	10	43.5						
	F	13	56.5						
	Total	23	19.2	27	20.8	42	35.3	44	29.7
Other	M	5	83.3						
	F	1	16.7						
	Total	6	5.0	36	27.7	5	4.2	5	3.4
Undecided	M	9	69.2						
	F	4	30.8						
	Total	13	10.8	5	3.8	13	10.9	16	10.8
Total	M	65	54.2						
	F	55	45.8	130	100.0	119	100.0	148	100.0
	Total	120	100.0						

주: 2008년의 경우 대학교수를 연구중심, 진료중심으로 구분하였기에 약간 수치가 높게 나왔음.

년도에 비해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비율이 봉직의 비율보다 약간 더 높아졌다. 2008년의 경우 처음으로 개원의를 희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2007년을 제외

Table III. Perceptions of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Medical Specialty(2008)

2008년	Category	Number	Percentile	2008	Category	Number	Percentile
Interests, concerns	Yes	117	97.5	Practice easiness	Yes	82	68.4
	No	2	1.7		No	18	15.0
	Total	120	100.0		Total	120	100.0
	Mean/SD	4.72	.568		Mean/SD	3.76	1.092
Values, worth	Yes	114	95.0	Salary expectation	Yes	83	69.1
	No	1	0.8		No	11	9.2
	Total	120	100.0		Total	120	100.0
	Mean/SD	4.70	.588		Mean/SD	3.85	1.010
Aptitude	Yes	111	92.5	Needs for Residents	Yes	83	69.2
	No	2	1.7		No	16	13.3
	Total	120	100.0		Total	120	100.0
	Mean/SD	4.57	.683		Mean/SD	3.80	1.105
Family expectations	Yes	63	52.5	Competitiveness of specialty	Yes	103	85.8
	No	11	9.2		No	8	6.7
	Total	120	100.0		Total	120	100.0
	Mean/SD	3.53	.888		Mean/SD	4.21	.907
Mentor, role model	Yes	73	60.8	Chances of faculty	Yes	61	50.9
	No	13	10.9		No	30	25.0
	Total	120	100.0		Total	120	100.0
	Mean/SD	3.68	.953		Mean/SD	3.38	1.196
Contacts with patients	Yes	93	77.5	Malpractice	Yes	69	57.5
	No	4	3.3		No	18	15.0
	Total	120	100.0		Total	120	100.0
	Mean/SD	4.00	.860		Mean/SD	3.52	1.021
Lifestyle	Yes	104	86.7	Social recognition on specialty	Yes	68	56.7
	No	6	5.0		No	21	17.5
	Total	120	100.0		Total	120	100.0
	Mean/SD	4.28	.850		Mean/SD	3.45	1.036
Individual factor	Mean	4.66		Characteristic of specialty	Mean	3.94	
	SD	.538			SD	.751	
Family and mentor factor	Mean	3.61		Social& political factor	Mean	3.64	
	SD	.778			SD	.795	

하고 모든 연도에서 약 11% 정도의 학생들이 아직 어떠한 전공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진로유형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대학의 임상교수를 여학생보다 더 고려하고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 보다 대학의 기초의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¹⁾

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과대학생들의 전공선택에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개인적 관심, 가치관, 적성), 가족·역할모델 요인(가족의 기대, 멘토 및 역할모델의 영향), 전공과목의 특성(환자와의 직접적 대면정도, 라이프스타일, 개원의 용이성, 수입, 전공의 인력 수요, 의료사고 위험정도), 사회·정책적 요인(졸업 후 전망, 교수직 진출 가능성, 전공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총 14가지로 분석하였다.

위의 14가지 요인들이 각각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학생들은 개인적 관심(4.72) - 개인적 가치관, 보람(4.70) - 개인의 적성(4.57) 순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개인적 요인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프스타일(4.28) - 졸업 후 전망(4.21) - 환자와의 직접적 대면 정도(4.00) 순으로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공선택에 가장 적게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요인은 교수직 진출 가능성(3.38)이었으며, 그 다음이 전공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3.45) - 의료사고 위험 정도(3.52) - 부모, 친지, 주위의 기대(3.53) - 멘토 또는 역할모델(3.68)의 영향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의 14가지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전공과목의 특성, 사회적·정책적 요인 등 4가지로 나누어 보면, 개인적 요인(4.66) - 전공과목의 특성(3.94) - 사회적·정책적 요인(3.64) - 가족 및 역할모델 요인(3.61) 순으로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진로선택의 어려움과 대학의 지원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로 상담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4>에서 전체 응답한 학생 110명 중 33명인 30%가 "상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7.5%인 12명이 진로문제, 31.3%인 10명이 학업문제(낮은 성적, 유급 등) 때문에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문제로 상담을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서 진로선택이야말로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진로선택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기도 한다. 다음의 <표 5>는 진로선택 시 대학에서 제공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만족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2005년 18.3%, 2008년 28.4%), 모든

1)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요인에 대한 논의는 김승준(2004)의 논문 참고.

연도에서 만족하는 비율보다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미국의 2005년과 2006년 진로개발 서비스 관련 문항 중 진로개발평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53.9%, 55.0%라는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AAMC, 2005; 2006).

Table IV. Personal Counseling

2008	범 주	빈도	비율(%)
Counseling Experience	Yes	33	30.0
	No	77	70.0
	Total	110	100.0
Person Who Take Counsel With	Vice Dean for Student Affairs	6	18.2
	Faculty Mentoring	15	45.5
	Professor in Charge of a Grade	3	9.1
	Professor in Dep. of Medical Education	2	6.1
	Other	7	21.2
	Total	33	100.0
Problems for Personal Counseling (multiple choice)	Difficulties in Learning	5	15.6
	Low Grade & Staying Back	10	31.3
	Career Planning	12	37.5
	Friendship	0	0.0
	Relationships between the Sexes	1	3.1
	Temporary Absence(disease)	1	3.1
	Other	3	9.4
	Total	32	100.0

Table V. Satisfaction for Career Planning Services

	2008		2007		2006				2005			
					Korea		USA		Korea		USA	
	No.	%	No.	%	No.	%	Q1	Q2	No.	%	Q1	Q2
Yes	34	28.4	26	20.0	14	10.8	77.5	55.0	28	18.3	78.0	53.9
No	46	38.3	46	35.4	55	42.3	6.9	19.5	61	39.9	6.6	19.8
Total	120	100.0	129	100.0	129	100.0	9,444	9,437	153	100.0	11,405	11,405

주: 미국 의과대학 졸업설문에서 Q1과 Q2는 진로개발서비스 만족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항들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의 선택과정 기회에 대한 만족도, 진로개발평가 활동(career assessment activities)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라.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선주·서동혁·김용일(2001)은 의과대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예비의사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을 수립하게 하는 것과 졸업 후 의사로서의 진로설계를 위한 것으로 나누고 있으며²⁾ 진로지도의 세 가지 축으로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지도교수제, 학생 상담실과 이들 간의 연계활동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에서 보면, 연세의대의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과 담임반 제도 및 학생상담실 운영은 예비의사로서의 정체성 수립과 졸업 후 의사로서의 진로설계를 동시에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연세의대의 대표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으로는 자기평가 프로그램(MBTI 심리검사, 스트레스 대처 검사), 진로지도를 위한 선택과목 운영, 특성화 선택 교육과정, 진로선택을 위한 선배와의 만남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MBTI 심리검사와 스트레스 대처 검사는 자기평가(self-assessment)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다. 자기평가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흥미(interests), 가치(values),

성격유형(personality type), 기술(skills) 등이 평가된다(전우택 등, 2006). 또한 연세 의대에서는 본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격유형 검사 중 하나인 MBTI 심리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인문사회학 교육과정 중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는 강좌로서 '의료인을 위한 성격의 이해'와 'Women in Medicine' 등이 있다. 이 과목들은 각각 자기평가와 졸업 후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³⁾ 이는 학습목표에 잘 나타나 있다.⁴⁾ 2006년 실시된 이 두 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 역시 각각 4.31과 4.36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바 있어 학생들의 강의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연세의대에서는 인문사회학 과정에 최근 인문 사회학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주제와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학과 음악, 의료 선교학, 의학과 미술, 장애인과 의료, 현대과학과 기독교, 효과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방법, Women in Medicine과 2007년도에 새롭게 개설된 과목으로는 인권의학, WHO와 국제의료정책이 등이 개설되었다.

4) 2007학년도 연세의대 강의편람에는 이 두 강좌의 학습목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1) 의료인을 위한 성격의 이해 : 사람의 성격분류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지표로서 유용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의 지혜로 이룩된 에니어그램(Enneagram)의 9가지 성격을 검토하여 자신을 알고, 내면의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친구, 직장동료, 특히 환자와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패턴을 인지하여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개선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 (2) Women in Medicine :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차지하는 여학생들에게 졸업 후 의료사회에서 활동해 나감에 있어 도움이 될 선배 여의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어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전자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동기를 갖게 하고, 짝 짜인 의과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확신과 예비의사로서 직업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며, 후자는 의과대학에서 졸업 후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의사로서의 삶 중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탐색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Table VI. Satisfaction for Specialized Elective Course

	2008	2007	2006	2005
Mean	4.22	4.23	4.18	3.63
SD	.845	.780	.963	1.152
N	120	128	127	153

셋째, 특성화 선택 교육과정(specialized elective course)은 2004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진로탐색 및 적성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개설되었으며,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8주간 4학점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초기 2005년(3.63)에 비해 2006년(4.18), 2007년(4.23), 2008년(4.22)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특성화 선택 교육과정이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특성화 선택교육과정에는 연구프로젝트 참여 경험, 국내외 의료봉사, 의료선교학, 의료단체 관련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정규수업이 끝난 후 미리 신청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로선택을 위한 선배와의 만남'은 의대를 졸업하고 다른 직업 영역 또는 학문 영역에 도전하여 삶을 살고 있는 다섯 명의 의사를 초빙하여 대담 위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총 5차례 실시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L기자(정신과 전문의, KBS 의학전문기자), K선생(보건의학 석사, 미국 콜럼비아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K박사(전 보건복지부 사무관), A박사(결핵내과 전문의, WHO 라오스 지역담당 책임), Y박사(소아과 전문의, GSK 학술 및 개발담당 부사장) 이 초청되었다.

이와 같이 연세의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

가지 진로지도 프로그램 중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선택과목과 특성화 교육과정,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기평가 프로그램(MBTI 검사 및 스트레스 대처 검사)과 '진로선택을 위한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객관적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진로지도를 위한 담임반 제도와 학생 상담실

1956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연세의대의 담임반 제도는 교수 1명당 3~4명의 학생을 배정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지도교수제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연세의대에서는 담임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담임반 제도는 담임반 교수와 학생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담임반에 소속된 선배들 간 유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의대 4년 동안 상담경험이 있는 학생 33명 중 15명(45.5%)이 담임반교수와 상담을 했다는 <표 4>의 결과는 연세의대의 담임반 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세의대에는 학생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부학과 과 의학교육학과 교수(정신과 전문의)가 학생 상담을 맡아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의학교육학과에서는 총 35건(23명)이 진로와 학업에 대한 개인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본과 1학년과 2학년이다.

고 찰

본 연구에서 나온 주요결과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세의대 학생들은 기초의학보다는 임상의학, 개원의, 봉직의 보다는 대학의 임상교수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김상현(2004, 200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전공과목에서의 성별분리(gender segregation)가 2008년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여하는 요인 중 자신의 가치관, 적성, 성격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교수직 진출가능성, 전공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사회적·정책적 요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미국의 의과대학생들이 전공선택시 다른 어떤 요인보다 멘토(mentor)나 역할모델(role model)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AAMC, 2006).

셋째, 연세의대에서는 진로지도의 세 가지 축(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담임반 제도와 학생상담실) 중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선택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의 개별화, 다양화라는 선택과목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교육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의 다양화, 선택과목 영역의 구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비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평가(self assessment)의 경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평가항목을 학년별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기평가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의과대학 상황에서도 진로선택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진로선택에 대한 지원시스템으로서 독자적인 전문상담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학 4년간 학생들이 상담을 위해 가장 많이 찾은 대상이 담임반 교수라는 사실과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멘토와 역할모델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담임반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기능을 하지만 아직까지 멘토나 역할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담임반 제도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지고, 담임반 교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 역할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담임반제도와는 별도로 교수들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멘토링(mentoring)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 론

진로선택은 의과대학 학생 본인에게는 앞으로 의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한국 의료체계 내에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의학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특정 진료과, 특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자 수가 절반을 채우기 힘들다고 한다(www.medigatenews.com). 이와 같은 의료계내의 특징과 기피현상 역시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의과대학생들의 진로선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의료체계,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앞으로 의과대학과 의료계 및 정부는 의대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지도를 위한 멘토링, 전문상담실 설치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진로지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할모델과 멘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수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개발세미나(faculty development seminar)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계 및 정부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현재 한국 의료체계내의 특징과 기피현상 등과 같은 의료현실이 사회에 미칠 여파를 직시하여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상현(2004), 한국 의료제도 내의 여성의 사의 지위. 보건과 사회과학 16:89-129.
2. 김승준(2004), 의과대학생의 성별(gender)이 전공과목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의학교육 6(1):61-72.
3. 김용일(1999), 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설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4. 메디게이트 뉴스(2007.12.5), 전공의 기피 단기처방 실패, 근본대책 시급.
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2008, 2007, 2006, 2005), 졸업설문 결과 보고서.
5. 임기영, 조선미(2002), 의과대학생의 전공선택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14(2).
6. 전우택, 양은배, 김은경(2006), 예비의사를 위한 전공선택 가이드 북.
7. 정선주, 서동혁, 김용일(2001),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모델의 개발 - 제 1편 가천의대 프로그램 기획안. 한국의학교육 13(2).
8. 정한용, 한선호, 최의정, 김동욱(1999), 진로선택에서 나타난 의과대학생의 자아방어기제. 신경정신의학 38(6).
9. AAMC(2006, 2005, 2004), Medical School Graduation Questionnaire
10. Kim, Sang Hyun(2007), The Gendered Structures and Status of Female Doctors in Korean Healthcare System, AMEE. Poster Presentation.